제대 낭종을 동반한 방광 외반증

이지은/김소라/이보연/이선경/허주엽/김승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실

방광 외반증은 전복벽의 아랫부분이 불완전하게 닫혀서 생기는 것으로 방광의 전벽은 형성되지 않고 후벽만 남아 있는 드문 선천성 기형으로 제대 낭종은 제대 이상 중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복벽 결손이나 척추부 결손 등의 태아 기형 및 염색체 이상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제대 낭종과 관련된 복벽 결손으로 인하여 대개는 제대 탈장이 동반되는데 방광 외반증으로 나타난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제대 낭종과 방광 외반증과 동반된 경우로 산모는 임신 초기에 제대 낭종이 발견되었다. 초음파 검사상 다른 태아 이상은 없었으며 핵형 분석도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기적인 초음파 추적검사에서 제대 낭종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임신 28주에는 거의 소실되었다. 이후 특별한 추적 관찰 없이 지내다가 임신 41주경 2.88kg의 여아를 정상 질식 분만하였다. 출생 후 신생아의 제대 부착부위에 종물이 발견되었고 방광 외반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방광 외반증은 초음파상 하복부에 고형성 종괴가 있으면서 정상 방광이 보이지 않을 때 의심할 수 있는데, 본 증례에서는 산전 초음파에서 지속적으로 정상 방광 소견이었다. 이에 저자들은 제대 낭종이 있는 경우 초음파 추적 검사에서 제대 낭종이 사라지거나 다른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출생 시까지 주의 깊게 지속적인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간단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